

최근의 정치권과 언론간의 갈등, 유착관계 또 그 이후의 돌아 가는 정세를 보면 그저 착잡하기만 하다. 정치가 왜 이 모양이 되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정치의 '가능성의 예술' '보나노 사회를 만드는 기술' '국민을 위한 우선순위결정과정' '최소자원에 대한 권위적 배분' 등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고전적 정치개념을 오늘날 이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치인에게 대입시켜볼 때 과연 올바른 정치인이 얼마나 있을까 물어보고 싶다. 국민에게 행복과 사랑과 가능성을 심어주는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에게 고통과 불행과 좌절감을 가져다주는 어찌 먼저 떠오르는 것을 정치인들은 간파하고 있는가? 다른 나라에서는 다가오는 2000년대를 준비하느라 바쁘게 이렇듯 소모적인 것으로 날뻐 새워야만 하는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항목 중의 첫째는 정치라는 것은 사상이나 이념의 바탕 위에서 기술 또는 계획된 정책이 형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라는 사상이나 철학은 없고 기술, 기법만 난무한다. 따라서 정치권은 자정(自淨)노력을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21세기를 내다보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둘째는 언론의 반성적 재출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언론기관과 기자들은 뼈를 깎는 자성과 개인적 차원의 도덕적 재우장이 형성되어야 한다. 그 동안 중앙일보 회장의 탈사건은 언론탄압이다 아니다라는 공방이 있었지만 언론기관의 그야말로 피를 뿜기 는 듯한 출혈판매 경쟁, 선거 때마다 튀어나오는 특정 후보 편들기, 사주(社主)나 편집자의 결합된 시각으로 빛이 지는 정보왜곡현상은 지양되어야 한다. 이번의 사건도 기자 정치인의 정보보원(情報源)과 정보원(情報員)의 역할을 하여 국가정보원(國家情報院)의 총수에게 '상품화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이 발단이 된 것이다. '언론고사'라 하여 100:1 이상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간 엘리트 기자가 하는 일의 수준이 겨우 이정도인가? 이 모든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나라의 정치가 없다. 있다면 '지시'와 '지침'만이 있다는 소문이다. 이제는 평소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말해온 김대중 대통령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모든 것을 진솔하게 국민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국민이 혹시 잘못했다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를 설득해야 한다. 이대로 나가다가는 국민이 입는 피해가 대만의 지진피해나 베트남, 인도의 태풍, 홍수 피해보다 더 클 수 있다.



황진수  
(현성대 교수)

“  
정치와 언론  
각각 正道 걸어야  
보다 나은 사회  
”

# “새천년은 종교화해의 시기”

## 바티칸서 세계종교지도자 회의 열려 가톨릭-개신교 478년만에 '역사적 화해'

오랜동안 갈등과 반목을 거듭해 온 지구촌 종교계의 종교간·종파간 화해작업이 활발하다. 이들의 화해 움직임은 20세기기를 마감하고 새 천년으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뜻 깊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세계종교 지도자회의는 지난 10월 25~28일 바티칸 성베드로 성당에서는 로마교황청 주최로 '종교들간의 협력'을 주제로한 세계 종교 지도자 회의가 열렸다. 대회에 참석한 불교·가톨릭·개신교·이슬람교·힌두교 등 주요 종파 성직자 2백여명은 세계화·민부적차 문제 등에 종교가 마음을 열고 앞장서자는데 의견을 모으는 등 종교간 화해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번 대회에는 티베트 불교지도자 달라이 라마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참여했으며, 국내에서는 불교계의 진월스님(세계종교연합 한국지부장)과 유교의 최창규 성균관장, 유만근 교수(성균관대 유학부) 등 3명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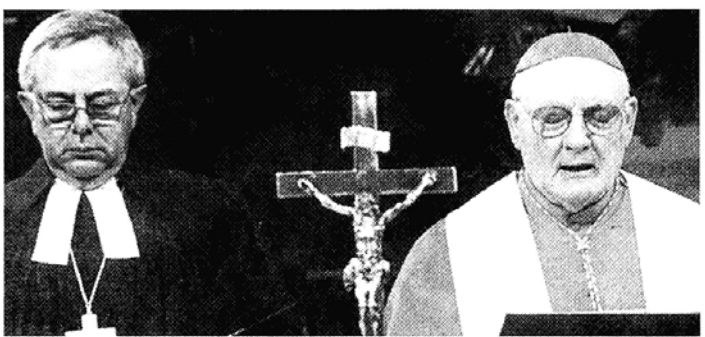
합의된 의견은 ▲무엇보다 먼저 진리와 정의 및 평화와 화해를 추구하도록 교육이 수행되어야 하며(교육) ▲다양한 종교 전통들의 신자들이 상호 이해를 조장하는 데 협력하기를 희망하고(대화) ▲과학과 기술적 힘의 측면과 윤리와 종교 사이에서의 균형이 필요하다.(더 좋은 세상을 위한 일) ▲우리는 종교인으로서 가족의 생존과 이것이 사회의 가장 중요한 구성체임을 확실하게 할 의무가 있으며(가족과

공동체) ▲기도와 명상을 통해 우리들은 신성한 존재들 및 서로에게 자기를 개방할 수 있다(정신성)는 내용이다.

달라이라마는 기자회견에서 "과거 피의 역사를 청산하고 21세기를 대화의 세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가톨릭-개신교 화해: 가톨릭과 루터교 개신교는 10월 31일 1517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선언 이후 478년만에 걸친 교리해석상의 분열을 종식하고 공식적으로 화해를 선언했다. 가톨릭을 대표한 교황청의 '그리스도인 일치추진평의회' 의장 에드워드 카시디 추기경과 개신교의 일파인 루터교 세계연맹 크리스티안 크라우저 감독은 독일 바이에른주 아우크스부르크 교회에서 만난 면회와 구원에 대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공동선언문은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신의 사랑'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내용을 채택했다. 인간구원과 관련해 가톨릭은 "신앙과 함께 선행을 실천해야 구원된다"는 입장이었고, 개신교는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신앙뿐"이라는 입장을 위해 서로 대립해왔다.

기독교-이슬람교 화해: 지난 3월에는 동방정교와 가톨릭이 분리 1천년 만에 역사적인 화해를 이뤘으며, 이슬람교 시아파 지도자이자 고위 성직자인 이란의 하타미 대통령이 바티칸을 방문해 이슬람과 기독교문명의 화해를 다짐하기도 했다. 또 가톨릭은 9월에 지난 1천년동안 벌어졌던 이슬람교도에 대한 기독교도들의 유타행위, 가톨릭과 개신교의 분리와 반목 등 '역사적 과거'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한영우 기자 (mwhan@buddhopia.com)



교황청 그리스도인 일치추진평의회 의장 에드워드 카시디 추기경(오른쪽)과 루터교 세계연맹의 크리스티안 크라우저 감독이 구원론에 대한 신·교간 5백년 논쟁을 종식하는 공동선언문 서명에 앞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

## “청소년 놀이문화가 없다”

### 같은 유혹업소뿐... 인천 화재참사 '人災'

마음껏 놀고 숨쉴 수 있는 공간만 있었더라도... 지난달 30일 일어난 인천 호프집 화재 참사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과 청소년들을 싸구려 술집으로 내모는 일그러진 청소년 문화가 뒤섞여 빚어진 참극이다. 젊음을 발산할 마땅한 놀이공간이 없는 청소년들이 안전사각지대인 '청소년 해방구'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비롯된 비극인 셈이다. 특히 이번 참사는 예견된 인재(人災)였다는 점에서 건전한 청소년문화에 대한 아쉬움은 더욱 크지만 하다.

학교문을 나서면 유혹업소밖에 갈 곳이 없는 척박한 청소년문화. 화재 당시 불이 난 호프집뿐만 아니라 그 일대가 10대 청소년들을 주 고객으

로 하는 노래방·게임방·볼라텍·호프집·소주방 등이 몰려 있어 평소에도 학생들로 북적거렸다는 점은 우리의 청소년문화 현주소가 어떤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제도 이전에 청소년들의 욕구와 고민을 이해하고 그것을 정상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어른들의 자서와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변하고 이에 따라 달라진 청소년들의 가치관부터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여가·공간·놀이에 대한 욕구도 기성 세대의 잣대로만 보아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이 땅에 어른으로 사는 것이 부끄럽다"는 어느 시인의 자조를 깊이 되새겨야 할 때다. 한영우 기자

## 생필품 챙기고 해외여행 자제

### Y2K 국민대처요령 정통부 발표

정보통신부는 지난 2일 컴퓨터의 2000년 인식오류인 'Y2K'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Y2K 국민대처요령' 10가지를 발표했다. ▲연말연시에 필요한 현금 미리 인출=12월 31일부터 2000년 1월3일까지는 금융 휴무일, 꼭 필요한 현금을 미리 찾아두는 것이 편리하다. ▲병원 방문시 Y2K 해결여부 확인=병원에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Y2K문제해결 표시를 확인한다. 특히 고혈압, 천식이나 심장질환자가 있는 집에서는 반드시 3~4일분의 약을 미리 챙긴다. ▲해외여행시 방문국의 Y2K문제 해결 확인=해외여행을 가급적 자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해당국의 Y2K 대처상황을 미리 점검. ▲유아, 노약자를 위한 세심한 준비=상비약, 담요, 휴대용 취사도구를 갖춘다. ▲PC 점검=중요한 자료는 디스켓에 따로 저장하고 부팅용 디스켓을 별도로 준비한다.

## 생활정보

### 올 김장 예년보다 늦추세요

생활: 기상청은 "오는 15~20일쯤 강원 산간 지방을 시작으로 예년보다 조금 늦게 김장을 담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2일 발표했다. 기상청이 발표한 적기는 ▲강원내륙 및 중·남부 산간 11월20~25일 ▲서울·경기·충북 11월25~30일 ▲충남·전북·경북내륙 11월30~12월10일 ▲전남·경남내륙·동해안 12월10~20일 ▲남해안 12월20~25일이다.

### 전기료 평균 5.3% 인상

생활: 전기요금이 5일부터 평균 5.3% 올랐다. 산업자원부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8.0%, 일반용과 교육용 가로등등을 각각 6.0%씩 올리는 등 주택용과 농사용을 제외한 전기요금을 평균 5.3% 인상했다.

### 실업급여기간 30일씩 늘린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의 자격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지급기간도 현행 60~2백10일에서 90~2백40일로 늘어났다. 노동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됨에 따라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자격은 종전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12개월 근무자에서 180일 근무자로 완화됐다.

### 매주 금요일 아간순환열차

여행: 매주 금요일 저녁 서울을 출발, 의정부와 장흥을 거쳐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서울 야경순환열차'가 생긴다. 서울지방철도청은 12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신촌역→서울역→의정부→장흥역→신촌역' 코스를 도는 순환열차를 운행한다. 6시25분 출발해 11시에 도착하며, 장흥역에서 2시간 동안 정차한다. 요금은 4,500원. 예매 가능 (02)392-7788

### 경찰청, '자동차112서비스' 실시

교통: 서울 경찰청은 2일부터 ▲타이어 펑크 ▲배터리 방전 ▲연료소진 등 차량운행 도중 발생한 경미한 고장시 112로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순찰차를 보내 응급서비스를 해주는 '112 자동차운행 민원해소' 서비스를 전국의 모든 경찰서에서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 콜레스테롤 낮추는 신물질 개발

건강: 커피 콜라 등 음료 형태로 마셔 콜레스테롤의 체내 흡수를 줄여주는 신물질이 개발됐다. 수원대 정명원 교수팀과 생명공학벤처 기업인 유진사이언스는 식물에서 추출한 자연계 콜레스테롤 저해물질인 '플렌트 스테롤'을 물에 녹여 음료로 마실 수 있도록 하는 신물질 '유플'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나를 완성하라

## 불자들을 위한 특별 강연회

..... 대체의학 음양침술의 실제 (비법) .....

나는 누구인가? 전생애 누구이며 무엇을 했을까?

나는 오래 전 아버님 골수 안에 별레(정충) 한마리였습니다.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전자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수천 수 억마리 중 그 가운데 한 마리가 나였습니다.

1차로 어느날 갑자기 음양이 합일되어 극열한 진동속에 나는 어머니의 자궁속으로 이동되어 난자를 만나 땃줄로 영양을 공급받으며 사람의 아들로 10개월동안 형성되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2차로 어머니의 젖을 (액체) 먹고 발육되었습니다.

3차로 다시 고체 음식을 먹는 체질로 성장되었습니다.

4차로 다시 기식을 먹고 (하늘의 음식) 살 수 있는 체질로 개선해야 나는 완성이 됩니다. (즉, 부처가 된다. 또는 성불했다)

오늘날 불자들은 수 천년동안 자신을 완성에 보려고 여러 방법으로 수행을 해 왔지만 결국은 늘고 병들어 죽었습니다. 이것은 윤회설의 고정 관념에서 초월합니다. 21세기는 나를 완성하는 새로운 생명 문화의 역사가 시작되며 생명문화가 세계를 지도하게 됩니다. 특별 강연회는 불자들을 모든 질병에서 예방시키는 법과 자신을 완성하는 수행법을 분명히 밝힐 것입니다.

나의 몸은 보이는 마음

너의 마음을 보려거든  
너의 모습을 보라  
너의 몸이 곧  
너의 마음이니  
보이지 않는 마음을 닦으려고  
애쓰지 말고 먼저 보이는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닦으라.  
그러하면 보이지 않는 너의 마음은  
부처가 되리라

**특/강/요/지**

- 나를 완성하는 길
- 만병이 오는 원인과 예방법
- 기의 실제와 음양순행의 원리
- 병증상은 수십 수 백가지로 나타나도 원인은 두가지 뿐이다.

대체의학 음양침술은 무엇인가?

음양침술은 우리 인체의 365혈을 대표로 7혈만 응용합니다. 예를 들면 두통, 편두통, 견비통, 요통, 팔, 다리, 손목, 발목, 좌골 신경통, 관절염, 소화불량, 가슴이 답답한 증세, 급제 등으로 고통이 있을 때, 1-2월만 침을 놓으면 1-3분 이내에 신기한 정도로 효과가 나는 것이 음양침술의 비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양침술에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다음과 같은 3대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남자들의 소화불량으로 가스가 차고 피로가 많이 오는 증상 등등  
둘째: 여자들의 소화불량, 히스테리, 불면증, 피로장애, 얼굴기미 등등  
셋째: 침이나 뜸이나 약으로도 치료 안되는 증상 등을 알게 합니다.

음양침술은 간단한 공식이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5시간만 강습을 받으면 가족은 물론이요, 이웃을 위하여도 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음양침술은 우리나라 침술역사상 처음 공개하는 대체의학이기 때문에 불자들에게 몸의 어느 부위가 아프신 분이냐 오랫동안 침을 시술하는 분이냐 의료진이나 모두 오셔서 나를 완성하는 이론강연과 더불어 직접 체험을 받아보시고 확실하고 신기한 감화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자들에게 위하여 매주 금요일은 2회 특별 강연회를 갖습니다.  
1회: 오후 1시~4시 2회: 오후 6시~9시  
참가비: 5,000원

**음양사** 관악구 신림4동 500-1  
문의처: 02)861-5851~2 FAX 861-5852

**위치안내** 2호선 전철 신대방역에 하차하시고 1번 출구로 나오셔서 4거리를 건너면 신림 4동 파출소가 있습니다. 파출소 담을 끼고 골목안 50m 정도 들어오셔서 (음양사) 간판이 있는 건물 2층으로 오시면 됩니다.